

대구대학교 교수회 통신

제8대 제6호 | 2023년 4월

〈 차례 〉

1. 〈논단〉
2. 〈자유기고문(1)〉
3. 〈자유기고문(2)〉
4. 교수회 활동 보고
5. 신임교원 안내
6. 퇴직교원 안내
7. 공지사항
8. 단과대학 평의원

논단

“우리 대학의 학과 구조조정은 안녕하신가?”



양진오(문화예술학부 교수, 교수회 의장)

대학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학내외 논의가 뜨겁다. 그런데 그럴수록 대학 생존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변수를 참고하는 정책 당국자들의 냉철한 지혜가 요청된다. 정부나 대학이나 그렇다. 특히 대학에서 이런 복합변수를 간과한 채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일은 관련 교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대학을 둘러싼 변수가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다. 학령 인구감소는 고등교육 정책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되어버렸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전방위적 소멸은 이제 시간의 문제 같다. 수험생들의 재수와 반수 선택은 아주 자연스럽다. 재수와 반수의 목적은 수도권 진입이다. 대학으로 상징되는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은 과거 같지 않다. 대학은 더는 고등교육의 전수기관을 자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복합변수의 요체들이 이와 같다. 필자는 학과 구조조정이 부득이 대학 생존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주제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그 기준과 방식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합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처럼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로 작동되는 학과 구조조정은 대규모 모집중지를 반복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우리 대학이 바로 그렇다. 학과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단기적 대학 생존이 아니라 장기적 대학 성장을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학교의 정책 당국자들은 복합변수를 냉철히 분석하며 학과 구조조정의 결과가 대학의 미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작금의 학과 구조조정이 우리 대학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될 거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우리 대학의 올해 3월 신학기는 신입생 충원의 수직 상승이라는 반가운 뉴스와 함께 시작되었다. 수시입시, 정시입시, 추가모집으로 이어지는 신입생 충원 과정에서 입학처가 보인 노고는 참으로 감동적인 바 있다. 어떤 일이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학 입학 업무는 특히 더 그렇다. 신입생 충원의 수직 상승, 반갑고 고마운 뉴스였다.

그러나 교수회의장으로서 3월 신학기 시작을 기쁘게만 맞이할 수는 없었다. 학과 구조 조정의 후유증 때문에 그렇다. 우리 대학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규모 모집중지를 결정하며 3월 신학기를 맞이했다. 신입생 충원 성적의 수직 상승이라는 반갑고 고마운 뉴스 뒤에 학과 모집중지를 요구받아 냉가슴을 앓는 교원이 적지 않았다. 학과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동계방학 기간에 진행한 학과 의견 수렴과 면담을 바탕으로 총장 등과 협의에 나서는 마음은 무거웠다.

그런데 진짜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었다. 모집중지 관련 학과 교수의 전화를 받거나 따로 만나게 될 때는 마음에 무거운 돌이 앉은 그런 기분이었다. 대학 경영 실패에 따른 결과를 왜 교수에게 전가하느냐, 자존심을 이렇게 다치게 할 수 있냐고 괴로워하는 교수가 있었다. 그리고 총장 및 주무 부서와의 면담이라는 게 답정너 면담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교수도 있었다. 모집중지 문제로 보람과 사기를 잃은 교수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대학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교수의 성과나 학생의 성과나 모두 그렇다. 그 성과는 교수와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얻어진 축적의 바탕 위에서 꽃을 피운다. 모집중지 통보를 받은 학과 중에는 20년 이상 오랜 시간 축적의 성과를 보인 학과들이 있다. 다음은 이제 어떤 학과가 문을 닫을까? 복합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학과 구조조정의 작동은 우리 대학의 교육여건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복합변수를 고려한 학과 구조조정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자유기고문(1)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
한국과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하나”

김양희(경제금융학부 교수)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자문위원)



미국이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핵심품목의 글로벌공급망에서 중국을 신뢰가능한 우방으로 대체하려는 ‘신뢰가치사슬(TVC)’ 구축 움직임에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의 끝에 불과하다. 바이든 정부가 임기 초 반인 2021년 6월 제시한 중간보고서가 반도체, 대용량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을 지목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공개한 최종보고서는 이에 더해 바이오, 군수, 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운송, 농식품까지 줄줄이 TVC 구축을 예고했다. 같은 해 9월 미국은 바이오의 TVC 구축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에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조항, IRA의 중구난방 자의적 해석, 바이아메리카법의 횡포 등 쇠퇴하는 미국의 몽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엄습한다. 우리는 그때마다 매번 휩쓸리고 요동치길 반복해야 하나. 이제 원칙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재세계화라고, EU도 탈위험(de-risking)일 뿐이라고 명토 박는다. 전면적 탈세계화도 탈중국화도 불필요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도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굳게 한 듯 보이나 실은 미국의 과도한 중국 자극을 막느라 안간힘 쓴다. 우리에게도 작금의 글로벌공급망 재편을 바라보는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라 입체적 시각이 절실하다.

미국의 공급망재편전략은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가 다르다. 전자는 첨단사양에만 국한시켜 집요하게 중국을 배제한 미국생산(리쇼어링)을 추구하는 반면 후자는 중국을 끌어

안고 북미생산(니어쇼어링)을 허용한다. 포드자동차가 IRA를 우회해 CATL과 손잡으려 하자 테슬라도 냉큼 뒤따르는 모양새가 이를 방증한다. 미국의 반도체와 반도체장비의 대중 수출은 2021년에서야 감소세로 돌아섰고 자동차와 항공기 수요는 회복기조를 보인 반면 일반 제조품은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린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 탈세계화가 아니라 선별적인 ‘보호주의 진영화’임을 말해준다.

12년 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승자는 없었다. 미국의 관계 회복 압박은 양국 모두에 가해졌으나 남은 반 잔을 채워달라며 내민 서울의 ‘반 잔 외교’에 도쿄는 백기투항을 강요하는 ‘빈 잔 외교’로 찬물을 끼얹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앞으로는 어떨까. 양국의 세력전이가 배태한 전환기적 갈등을 일거에 풀겠다는 건 역사 앞에 오만이다. 한일관계의 봄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양국이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 비평화의 시대에 직면한 공통 현안을 외면한다면 미래시대에 무책임한 것이다.

앞으로 두 나라 모두 승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할까. 때마침 3월 30일자 <이코노미스트>지는 파멸적인 미중 갈등을 막으려면 서방 진영이 대중봉쇄 범위를 민감품목으로 제한하고, 아시아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을 통제해 전쟁 가능성을 낮추며, 서방은 개방성과 법치로 중국 정부에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는 다름 아닌 외교력의 발휘를 뜻한다. 여기에서 한일관계 복원에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첫째, 양국은 다양한 협력사업 구상에 부풀기 전에 그 방향성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한일 양국은 협력 공간을 한일이나 한미일에 가두지 말고 인도태평양이든 G7+든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해야 한다. 양국에 시급한 협력 의제는 탈세계화 영역을 줄이고 아시아에서 강대국간 전쟁 위험을 통제하며 자유와 법치의 지배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국의 힘은 물론 한일이나 한미일 협력으로 안된다. 한일 양국은 강대국 정치의 각축장 아시아에서 이들 사이에 끼인 중견국간 연대와 공조의 기틀을 놓아야 한다.

둘째, 그러나 대안 없는 선의는 가장된 굴종이 되기 쉽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한국은 일본에 대한 바트나(BATNA, 협상결렬에의 대안)도 준비해야 한다. 냉혹한 국제무대에서 신뢰 회복의 동력은 선의가 아닌 국력과 국익이다. 이 점에서 일본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10위 경제대국이자 첨단제조강국이며 방산강국이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의 최인접국이다. 한일이 손잡고 주도하는 중견국 연대야말로 다가올 아시아의 미래, 글로벌 사우스의 시대를 맞는데 절실한 양국 국익에 부합한다.

테가트 머피는 역작 <일본의 굴레>에서 일본의 원죄는 스스로 아시아로부터 분리하려

는 했던 점이라고 일갈한다. 역사의 추가 다시 동아시아로 기울고 있는 지금, 일본이 여기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려면 과거사를 직시해야 하나 이는 한국이나 중국이 아닌 일본을 위해서라는 그의 애정어린 고언을 일본은 귀담아 듣기 바란다. 만일 일본이 남은 반 잔을 채우지 않는다면 한국은 일본에 한 푼도 받지 않음으로써 면죄부 대신 부끄러움을 안기라. 이제부터의 일본의 시간이다.

자유 기고문(2)

“어느 50대 꼰대의 기억”

강민건(영어교육과 교수)



오후 수업을 기다리며 연구실 한쪽 창문을 타고 스며드는 꽃향기와 함께 봄의 잔광을 마주하다, 주말 오전 아이와의 대화를 기억한다. 아침부터 스마트 폰을 만지작거리던 아이가 ‘왜 이리 느린 거야’ 하며 투정을 부린다.

“오늘은 엄마가 일이 있어 조금 늦는데”라고 무심코 답변하고 나서야 나의 답변이 동문서답임을 깨달았다.

‘느리다’라는 말을 ‘늦는다’라는 말로 알아들은 나의 무성의한 경계심도 그러거니와, 그 독백은 스마트 폰 검색 속도가 느리다며 내뱉은, 나의 답변이 애초에 필요 없었던, 아이의 자위 섞인 목소리였다. 그 독백에 애써 답을 하는 꼰대가 돼버린 지금의 나를 본다.

다양성과 개성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아날로그 라디오와 다방의 기억과, 이른바 그 시대의 스마트 폰 역할을 수행했던 삐삐(beeper)라고 불리던 기계는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삭제돼 있다. 그 시절의 사연들을 끄집어 내어, 술자리 안주로 삼아, 이야기를 늘어놓는 50대의 자조가,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는 애초 기억조차 없는, 낡고 시대에 뒷걸음치는 꼰대의 듣기 싫은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빠른 속도의 경쟁 시대에, 점점 부풀어 오르는 배를 쓰다듬으며 늙어가고 있음을 위로하는 순간에도, 아이들은 스마트 폰 안의 세상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며, 우리들의 염려와는 아랑곳없이 그들만의 새로운 의사소통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나의 20대를 거울처럼 투영한다. 그 시절 나는 그 대학 근처의 시장 안, 반지하 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요즘 같은 추위가 닥치면

늘 그렇듯이 연탄 끼지는 일로 전전공공해야 했으며,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칼바람에 시달려야만 했다. 물질적으로는 자발적인 ‘비루한 삶’의 시작이었다.

그 시절, 시골에서 상경한 내 포래의 학생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열악한 생활 조건을 견디어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모님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는 아랑곳없이 그들의 어려운 삶을 견디는 힘과 이유를 우리로부터 찾으며 대리 만족을 경험하던 시절이었다. 최근에는 대학생이라 해봐야 별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당시에는 대학생이라는 위치는 무슨 훈장처럼 꽤 호사스러운 자리였다. 그래서인지 그 비루했던 생활은 젊음과 까닭 없는 자만심으로 우쭐대며, 보장된 미래를 얻은 그것처럼 자위했던 삼류의 시간으로 기억한다.

지금 21세기의 대학은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상아탑은 이미 오래전 땅에 묻힌 유물과 같은 표현으로 전락했다. 교육부는 취업률 등 여러 가지 잣대와 숫자를 들이밀며 전공과는 관계없는 이른바 대학을 직업전문학교로 양성하라고 암묵적인 종용을 하고 있다. 모든 대학 내부의 구조조정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대학은 어두운 터널을 넘어 흑독한 겨울을 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대학은 노동자, 농민, 빈민 운동, 80년대 5·18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시민항쟁, 88년 노동자 대투쟁, 90년 기무사 보안 사찰, 91년 분신 정국 같은 국가의 침울했던 시절과 분위기를 같이 했다. 학생들은 국가 분위기와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일류들의 삶을 경멸하며 국가와 대학의 개혁을 위해 삼류들의 힘을 발휘하던 시절이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무모하리만치 자신을 버리고 혁명을 꿈꾸던 시절이었다.

이제 50대가 되어 대학 안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떠나는 지금의 아이들에게 딱히 뭐라 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다.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는 잔인한 이 사회 안에서 살아남기만을 바라지만, 일류만 기억하는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 하나 달랑 받고 세상에 뻗대며 살아가라고 강요하기에는 80년대의 대학 논리는 엇나가 보인다. 몇 년 전 내 강의를 들었던 어느 학생이 인터넷 개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졸업의 심경을 담은 이야기가 가슴을 애틋하게 한다.

“지난 육년 간의 대학 생활이 마무리되어간다. 되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다. 굉장히 괴로웠고 굉장히 기뻛고 굉장히 행복했다. 24살의 늦깎이로 대학을 입학한 나는 이제 십여 일 후면 서른이 된다. 입학 초기의 나는 서른이 되면 아무 걱정도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그 젊은 시절의 걱정거리를 보장된 미래로 위로하곤 했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나니 더 큰 무게감만 어깨에 걸려있다. 하지만 또 시간이 흘러 지금의 시절을 돌아보면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듯 웃으며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나와 함께

있어 준 모든 분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의 아픔이었던 모든 분도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더 큰 가슴으로 이성과 감성으로 사람들을 따사롭게 바라보는 관찮은 놈이 되자.” 내가 기억하는 이 학생은 지금의 대학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친구였다. 꽤나 진지했고, 동료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으며, 지나치리 만큼 낭만적인 아이였다.

어쩌면 오늘날의 ‘일류사회’는, 지금쯤 서른 중반이 다 되어가는 이 아이처럼, 별반 직업을 얻지 못한 아이들을 ‘삼류’로 낙인찍어 영원히 사회 밖으로 격리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를 버리고 사회의 규칙 안으로 들어와서 당당히 일류가 되라고 압박하는 공간에서 삼류의 인생은 찬란해 보이지 않는다.

아 그러나, 꺾질 없는 알맹이가 없듯/ 위대하게 천박한 삼류 없이/ 어찌 일류의 광휘가 있으랴/ 삼류는 일류들이 앉아 있는 맨 앞줄을 겸손하게 지나서/ 이류들이 앉아 있는 중간을 우아하게 지나서/ 삼류들이 뭉쳐 있는 후미에 뽐내듯 어깨 세우고 앉는다/ 삼류는 생각한다/ 이렇게 열심히 노래 부르다 보면/ 언젠가 저 중간을 넘어 저 맨 앞줄에 의젓하게 앉아 있는 날이 올 거야/ 삼류는 가슴을 내밀어 숨을 크게 마셨다 내 뽐는다/ 그러나 그날은 언제 올 것인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삼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온다/ 그녀도 세상은 이미 각본대로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어렵פות이 눈치채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삼류는 어제 그러하였고 오늘 그러하였듯/ 내일 또 무대에 올라 노래 부를 것이다

-이재무 <삼류들>

어느 시 구절처럼 이 시간이 가고 그들의 세상이 오면 일류들의 삶 안에서 빛나는 자신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는 삼류들의 삶을 기다려 본다. 50대의 끈대를 자처하며 속절 없는 기억을 하는 동안 오후 햇살은 찬바람 소리와 함께 어느새 따스한 봄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교수회 활동 보고(2022년 11월~2023년 3월)

2022년

- 11월 7일 : 대학평의회 교원평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공지문 공지
- 11월 11일 : 대구대학교 대학평의회 교원평의원 선출
- 11월 28일 : 교수회 의장단과 총장 간담회
- 11월 29일 : 故 성산 이영식 목사 41주기 및 故 창파 이태영 총장 27주기
합동 추모식 추도식 교수회 의장 참석
- 12월 15일 : 특별연구년제에 관한 지침 관련 공청회
- 12월 19~22일: 특별연구년제에 관한 지침에 대한 교원 의견 수렴

2023년

- 1월 2일 : 교수회 성명서 발표 “2023년을 학교 경영 기조 혁신의 원년으로”
- 1월 9일 : 교수회 성명서 발표 “공정한 개방이사 선임을 촉구한다!”
- 1월 16일~2월 17일 : 교원 소속전환 및 교육편제 조정관련 수렴 및 면담
- 1월 27일 : 총장 및 기획처, 사무처장 면담 (편제, 사무공간 통합)
- 2월 20일 : 교육편제 조정(모집중지) 학과 면담
- 2월 21일 : 의장의 총장면담 (수렴의견 및 교수회 입장 전달)
- 2월 27일 : 교육편제 조정을 위한 학칙개정 교무위원회 참석
- 12월~2월 : 교육편제 조정 관련 학과 및 교수의 비공식 민원 수시 접수
- 3월 6일 : 교수회 성명서 발표 “2023년 신학기, 제8대 교수회 과제 보고”
- 3월 7일 : 교수회 평의회 개최 (활동보고 및 사무국장 선임보고)
- 3월 17일 : 교수회 성명서 발표 “이사회는 개방이사 선임을 더는 미루지 않아야 한다!”
- 3월 20일 : 교수회 의장단과 총장 간담회, 연구처장 면담

신임교원 안내



“환영합니다”

© 2022년 9월 1일자 (가나다 순)

성명	소속	초빙분야
박광현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최형문	조형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제품디자인

© 2023년 3월 1일자 (가나다 순)

성명	소속	초빙분야
송경희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상담심리

퇴직교원 안내

교수님들의 정년을 축하드립니다. 정년 이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강의와 연구, 학생 지도를 통해 학교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 감사드립니다.

© 2023년 2월 28일자 (가나다 순)

성명	소속	최초임용일
공재식	경영대학 경제금융학부	1995.3.1.
김미령	사회과학대학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2002.3.1.
김봉훈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1998.3.1.
문태형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1995.3.1.
박광득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과	1999.3.1.
소영진	법·행정대학 경찰학부	1995.3.1.
이달엽	재활과학대학 직업재활학과	1994.9.1.
이영옥	과학생명융합대학 화학생명과학부	1991.9.1.
이채욱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1990.3.1.
장세헌	과학생명융합대학 화학생명과학부	1991.9.1.
정찬홍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1994.9.1.
조영준	과학생명융합대학 화학생명과학부	1994.9.1.

공지사항

(1) 2023년 1학기 주요일정

- 4월 3일(월) : 교수회 통신 발행(제8대 6호)
- 4월 26일(수) : 제9대 교수회 의장단 선거 공고
- 5월 17일(수) : 제9대 교수회 의장단 선거 실시
- 6월 12일(월) : 교수회 통신 발행(제8대 7호)
- 6월 29일(목) : 제8대 교수회 임기만료
- 6월 30일(금) : 제9대 교수회 임기시작

(2) 제9대 교수회 임원선거 진행 일정

진행 내용	규정 근거	해당 날짜
단과대 교수회에 선관위원 추천 의뢰		4.10.월
선관위 구성	선거일 25일 이전	4.17.월
선관위 1차 회의		4.18.화
교무처에 선거인명부 요청		4.19.수
후보자등록, 선거일시 및 투표장소 공고	선거일 20일 이전	4.26.수
후보자 등록	선거일 15~10일 이전	4.30.월~5.8.월
후보자 검증 / 선관위 2차 회의		5.8.월
후보자 등록 공고		5.9.화
선거실시 및 당선자 확정 공고/선관위 3차 회의	만료 90~30일 이전	5.17.수

(3) 각종 위원회 교수회 추천 위원

성명	소속
교무위원회	양진오(인문대학 문화예술학부/교수회 의장)
교원소속전환심의위원회	차정호(사범대학 화학교육과/교수회 부의장)
교원인사위원회	차정호(사범대학 화학교육과/교수회 부의장)
예산조정위원회	이가연(경영대학 경영학부/교수회 부의장)
기획위원회	노정희(경영대학 호텔관광경영학부/교수회 사무국장)
고충처리위원회	이기은(경영대학 경영학부/교수회 간사)
인권대책위원회	장진(조형예술대학 융합예술학부/교수회 간사)
편제조정심의위원회	이가연(경영대학 경영학부/교수회 부의장)
전제게시물심의위원회	차경애(AI학부)

단과대학 평의원

(2023년 3월 31일 현재)

단과대학	단과대학별 교수회장 및 평의원	
인문대	김봉정(일본어일본학과) 민성기(국제어문학과)	
법·행정대	고상현(법학부)	김동신(행정학과)
경영대	김양희(경제금융학부)	박승준(경제금융학부) 황진태(경제금융학부)
사회과학대	이소영(사회학과)	노성향(아동가정복지학과) 정소희(청소년상담복지학과)
과학생명융합대	황근보(통계학과)	사공동훈(원예학과)
공과대	황인조(환경기술공학과)	이미령(식품영양학과) 이우성(조경학과)
정보통신대	장중혁(컴퓨터정보공학부)	이강현(전자전기공학부)
조형예술대	박진우(산업디자인학과)	최영림(패션학부)
사범대	박종근(지구과학교육과)	정훈(교직부) 장혜진(유아교육과) 박진우(수학교육과)
재활과학대	김환(작업치료학과)	김명권(물리치료학과)
성산교양대	박영식(자유전공학부)	
간호대학	황혜남(간호학과)	
독립학부	여준호(AI학부)	

『대구대학교 교수회 통신』 제8대 제6호

발행인:양진오(의장)

편집인:차정호(부의장),이가연(부의장),노정희(사무국장)

교수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교수학습지원관 1층 1101호

사무실 053.850.5753 팩스 053.850.5754

홈페이지 <https://prof.daegu.ac.kr>